

정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지역에 진안군 포함

군, 수해피해 복구 신속 추진

도로·하천 등 분야별 7개반으로 이뤄진 TF팀 구성
피해지역 주민 불편 해소 우선 재난지원금 조속 지급

전춘성 군수는 26일 오전 11시 브리핑룸을 방문 진안군이 정부의 제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복구 사업 신속 추진 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모, 농업시설, 주택 등 분야별 7개반 48명으로 이뤄진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TF팀'을 구성해 재해위험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수해피해는 올해 말 사업을 완료하고 중·대규모 사업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를 우선으로 삼아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은 실시계획 용역을 신속히 발주하고 수해복구 예산의 예비비를 확보하는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진안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까지 집중호우가 발생했고,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피해 조사 결과 공공시설 119억, 사유시설 4억5,000만원 등 피해액이 총 123억에 이르러 지난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호우 피해 복구 예상액은 총 236억으로 당초 복구예산 부담 비율인 국비 50%, 군비 50%에 따라 국비 116억, 지방비 1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38억의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어 국비 지원액이 154억에 이르게 됐다.

이번 호우로 인해 신고된 피해건수는 4,569건에 이르며, 산사태 및 토사 유출, 제방 유실 등 466건에 대해서는 예비비 6억5,000만원을 긴급 투입해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계기로 체계적인 복구계획을 세워 군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춘성 군수는 26일 오전 11시 브리핑룸을 방문 진안군이 정부의 제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복구 사업 신속 추진 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달 7일까지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접수

무주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부문
봄철 가뭄 등 자연환경에 상대적으로 노출로 안정적 생산이 목적

무주군은 오는 9월 7일까지 2021년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과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부문이다. 도비와 군비 각각 50%와 10% 지원한다. 단동 또는 연동 비닐하우스 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통합 마케팅 조직과 3년간 출하약정을 맺은 원예재배 농가가 대상이다. 지원 단가는 단동 2만 2,000원/㎡, 연동 9만6,000원/㎡이다.

스프링클러 자재, 여과기, 물탱크 등 관수·관비 시설을 지원하는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도 통합 마케팅 조직과 3년간 출하약정을 맺은 노지채소재배 농가가 대상이다. 기존 사업대상자 중 출하약정 이행율이 80% 미만자, 원예유통사업 포기 후 3년 미경과자, 같은 사업을 완료 후 2년 미경과자는 제외되며, 고구마와 감자 콩 등 식량작물 역시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에서 제외된다.

이들 사업은 봄철 가뭄 등 자연환경에 상대적으로 노출된 노지채소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이 목적이다.

김현수 무주군 원예특작팀장은 "전북도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시설원예 지원사업은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구축해 농가의 안정적 소득창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며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금연 클리닉 관리 대상자 비대면 지원

장수보건의료원,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금연 클리닉 관리 대상자들을 비대면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장수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예방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대면 금연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보조제 배달 등의 '비대면 원격 금연 클리닉'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금연클리닉은 의료원에 직접 방문을 통해 이뤄졌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 누구나 전화 상담으로 비대면 금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금연에 필요한 보조제(매치, 캄, 가그린, 치약 등)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장수군은 지난 2018년부터 '금연 장

려 조례'를 제정해 금연클리닉 등록 후 성공시 12개월 20만원, 18개월 50만원, 24개월 8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금연 등록 후 4주, 12주, 6개월에는 일산화탄소검사, 요검사를 실시해 금연 여부를 확인하고 12개월, 18개월, 24개월에는 일산화탄소검사, 요검사, 모발검사를 실시한다. 금연클리닉 등록은 장수군보건의료원·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실에서 할 수 있다.

윤옥경 보건사업과장은 "비대면 금연 서비스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포함된 흡연자 본인은 물론 가족구성원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 곳곳 수해피해 복구 성금 잇따라 기탁

무주군에는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성금과 물품이 줄을 이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6일 현재까지 총 17개 단체 8명의 주민이 7천여만 원을 기탁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에는 (유)수오건설 김성아 대표가 500만원, 적삼면 여울교회에서 100만원, NH농협무주군지부에서 200만원 상당의 마스크 2,000매를 기탁했다.

접수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무주군 관내 수해피해주민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농기계 사고예방 현장 안전교육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소장 고정식)는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면서 농업인의 자가 정비기술 능력 향상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영농철마다 반복 되고 있는 농기계 사고관련 사망자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인에게서 발생하고 있어 대부분이 기기조작·대처능력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은 마을별 순회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자가 정비기술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농한기인 11월 이후에는 5개 마을을 선정해 농기계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일선부족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을 위한 자동이식기 등 각종 농기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최적의 기상관측' 가능해져

무주군, 기상청과 협의 자동기상관측장비 이전 검토

청정 무주가 앞으로 최적의 기상관측 가능하게 되면서 시원한 무주의 이미지를 더욱 견고하게 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17일까지 사업비 3,800여만 원을 들여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주변에 설치된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를 국민체육센터 인근(무주읍 당산리 854-2)으로 이전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주의 아침 기온은 전북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낮 기온은 높은 수준으로 관측되면서 인근지역으로의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이전을 검토하게 됐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가 농업기술센터 주차장과 가까운 아스팔트의 복사열의 영향으로 인근 시군인 진안·장수보다 온도도 2도 정도 높게 측정됐을 뿐만 아니라 저지대 평야인

정주시, 익산시와 비슷하게 측정되면서 무주군민과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혼선을 빚게 했다.

이에 무주군은 주변 기상관측장애물(건물 및 나무 등)이 없어 기상관측에 최적지인 이곳으로 옮기게 됐다.

이전 된 기상관측장비는 운송도계를 비롯해 풍향풍속계, 적설계, 강수량계 등이다. 최적의 기상관측 환경이 조성되어 타 지역보다 낮은 기온의 홍보로 무주군의 이미지 제고와 하절기 무주관광에 크게 기여하는 기대효과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백기종 안전재난과장은 "8월부터는 최적의 기온측정과 기상분석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시원한 무주, 청정지역 무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내달 7일까지 '전북도 사회조사' 실시

장수군은 오는 9월 7일까지 2020년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사회조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구조 변화상을 파악해 지역정책개발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표본으로 선정된 관내 8107구의 가구주와 만 15세이상인 가구원으로 47개의 공통항목과 장수군 10개의 특성항목에 대해 조사원이 가구별로 조사표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비대면 조사로 진행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조사 대상자가 원하면 전화 조사 참여도 가능하다.

조사 내용은 가구가족, 소비소득, 고용노사, 복지, 사회참여, 공통 특성 및 군 특성 항목 등 7개 부분이다.

조사결과는 전문기관의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 말 전북도 통계시스템과 국가통계포털에 공표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